

# 한국문화교류 소식

56호 2025년 6월 30일 발행·발행인 이효정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564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kr



[특집: 현장의 눈]

## 한국문화 국제교류를 위한 외교와 재외동포의 역할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정기총회 및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 개최

ICKC는 지난 3월 28일(금),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 및 “한국문화 국제교류를 위한 외교와 재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못 하신 회원 분들께 지면을 통해 총회와 포럼의 취지 및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총회, 세미나, 문화탐방 등 ICKC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_ICKC 사무국



▲ 위호인 ICKC 이사장 개회사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이하 ICKC)는 2025년 3월 28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김용구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제18대 국회의원,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영호 전 북경총영사 등 주요인사 및 ICKC 회원 7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포럼으로 나누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하는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 신입 이사장 취임 소감을 밝히는 이효정 이사장



▲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을 보고하는 강석재 이사

어 진행되었다. 위호인 ICKC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과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조정원 총재는 난민, 고아 등 전 세계 불우한 청소년의 태권도 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태권도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는 ICKC에 특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환영사에 이어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2024년 회계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 ICKC 단체 명칭 변경, 사무국 이전, 임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상정과 회원들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 재외동포와 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취지로 ICKC는 기존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라는 단체 명칭을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로 개칭했고, 임원 및 감사도 신규 선출하는 등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ICKC는 새로운 도약을 기도하게 되었다.

신규 선출된 임원 및 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이효정(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사 강석재(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강영실(교보생명 프라임리더), 박영옥(전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심의표(전 KBS 부산총국장·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감사 고용규(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연기영(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다음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 주요 사업 보고가 있었다. ICKC 이사이자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인 강석재 위원이 단상에 올라 ‘WT 케어스 프로젝트’와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 태권도 동상 제막식, 스포츠를 통한 인류 공헌에 힘쓴 공로로 수상한 IOC 올림픽컵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여러 경사(慶事)를 보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특별 순서로 해금 기증식이 열렸다. 본 해금 기증식은 국제로타리 3640 지구 미래발전위원회 오창현 회장(대진석재산업 대표이사)의 해금 기증 및 이효정, 이경혜, 이태화 회장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독일에서 해금 앙상블 케이울(K-Yul)을 조직해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노유경 독일 쾰른대 교수(음악학박사)가 해금을 기증받았다.



▲ 해금 기증식 기념촬영. 왼쪽부터 오창현 (주)대진석재산업 대표이사, 이병욱 서원대 명예교수(노유경 교수의 은사), 이효정 ICKC 이사장, 노유경 독일 쾰른대 교수

해금을 기증 받은 노유경 교수는 이러한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번 기증식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국문화 교류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감사의 뜻으로 아리랑을 해금으로 연주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 노유경 교수의 해금 연주

이어진 2부 ICKC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이영호 대사가 '한국문화 국제교류를 위한 외교와 재외동포의 역할 - 지자체 공공외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예멘 대사, 북경총영사 등 30여 년 외교 현장에서 활약한 외교 전문가인 이영호 대사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실행한 여러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생생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보람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 ICKC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에서 강연 중인 이영호 대사 ▲ 이영호 대사의 강연을 경청 중인 ICKC 창립 14주년 기념포럼 참석자들

이영호 대사는 강연 마무리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공공외교의 효율적 협업체계 운영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지적하며 하버드대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가 주창한 '스마트 파워' 즉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문화의 힘에 바탕한 소프트파워를 더한 스마트 파워 증강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인 만큼 포럼 참석자들도 공감하며 경청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다방면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기념촬영한 후 ICKC 2025년 정기총회 및 창립 14주년 기념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 ICKC '정기총회 및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 참석자 기념촬영

##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바람



팜 티란 호엥  
베트남 유학생

저는 베트남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후 회사에 다니다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현재는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는 대학 졸업 후 하노이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하며 이렇게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글자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한글에 빠져들었고 회사에서의 2달 이후부터는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할수록 다양한 어휘와 한국어 어미(語尾)를 접하면서 한국어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국어를 알아가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한국어에

빠져들어 한국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한 결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언어로,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그리고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특히 베트남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60개 이상의 한국어교육 센터가 있고 5만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등 한국어교육 규모에서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베트남 익스프레스, 2023년 7월 기준). 이러한 인기는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어학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2022년 입시에서 베트남 일류 대학인 하노이 대학의 경우, 한국학은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에서 가장 높은 입학점수(29.95점/30점)를 기록한 3개 전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8년부터 공교육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도입하였는데 3학년 때부터 외국어1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국으로 유학하는 베트남 학생 수 증가로 이어져, 2023년 현재, 한국

유학생 181,842명 중 43,361명이 베트남인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베트남 사람들은 번역/통역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해 업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통역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임에도 약 10~15%가 토픽 4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한국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 K-POP 아이돌 선호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10대들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는 나이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고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주요 계기는 1992년 12월부터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 롯데그룹 등 쟁쟁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한국어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에 지사를 많이 세우고 있어 한국어를 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아 지니 베트남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수요는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베트남인의 70% 이상이 한국어에 호감을 갖고 있으며 빅뱅,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K-POP을 좋아하며,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기도 높아 롯데, LG 등의 제품과 함께 이니스프리 등 화장품의 인기도 높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세계와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가 높은 것은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가 비슷해서 두 나라 간의 문화 이해 및 유입이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는 축구를 매우 사랑하고, 현재 베트남 멀티 축구팀의 수석코치도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친숙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원을 세웠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최초였습니다(2006년 11월 개관).



▲ K-POP 콘서트에 모인 베트남 팬들 (출처 연합뉴스)



▲ 전 세계 세종학당 설립 현황(2022년 기준 / 출처 세종학당재단·연합뉴스)

저는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가깝고 친숙해져서 서로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 유학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보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더욱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장 잘 가르치는 인기 강사가 되는 꿈을 꾸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 올림픽난민재단(ORF), 난민 지원 모범 사례로 태권도박애재단(THF) 호평



강석재

ICR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T)이 2016년 설립한 태권도박

애재단(THF)의 활동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올림픽난민재단(ORF) 이사회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지난 6월 2일, 스위스 로잔 올림픽 하우스에서 열린 ORF 연례 이사회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겸 ORF 이사장은 THF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ORF가 추구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THF"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IO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된 커스티 코번트리 당선인, 유엔난민기구(UNHCR)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 조



▲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가운데)과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당선인(왼쪽에서 다섯 번째), 조정원 WT 총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올림픽난민재단 이사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정원 WT 총재 겸 THF 이사장, 안 이달고 파리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THF를 위한 특별한 세션이 마련되어, 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THF의 활동이 집중 조명된 점도 고무적이었다.

조정원 총재는 최근 요르단에서 열린 '제3회 호프 앤드 드림스 스포츠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유하며, THF가 단지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 난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가 난민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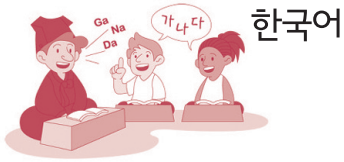
내년 THF 창립 10주년을 맞아 참가 종목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역도 더 넓힐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르완다 마하마 난민캠프를 직접 방문한 조 총재는, 2018년부터 이어온 태권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정착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IOC는 태권도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WT와 THF에 올림픽컵을 수여한 바 있고,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도 매년 태권도발전기금 후원을 통해 THF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제3회 호프 앤드 드림스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요르단 아즈라크 캠프 난민 청소년들(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세종대왕 나신 날’ 브라질서 한글 역사 특별 강연

상파울루 소재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은 국가기념일인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맞아 한글과 관련한 특별 강연회를 했다고 5월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전날 열린 행사에서 정미선 세종학당 한국어 강사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에 관해 설명하고 훈민정음 창제·반포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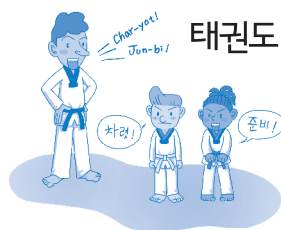
150여 명의 참석자 중에는 세종학당에서 한글 공부를 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는데, 한글을 체계적인 원리에 따라 구상했다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문화원 측은 전했다. 김철홍 브라질 한국문화원장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브라질 주민들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하나의 명소로 잘 알고 있다”며 “이곳을 방문하게 될 브라질 주민에게 한글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한국 역사와 철학에 대한 지식 나눔을 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 전문 출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2025/05/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7002400087?section=search>



▲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특별 강연회(브라질 한국문화원 제공)



태권도

## 태권도 주축 난민 청소년 스포츠 축제, 요르단 난민 캠프서 폐막

태권도를 주축으로 한 난민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호프 앤드 드림스 스포츠 페스티벌’(Hope and Dreams Sports Festival)이 5월 3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과 태권도박애재단(THF)이 국제스포츠 기구들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4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보호구역인 자타리캠프, 아즈락 캠프, 암만 스포츠 시티 일원에서 열렸다.

난민들은 태권도, 3대3 농구, 베이스볼5, 배드민턴, 핸드볼 등 5개 종목과 역도 등 6개 시범 종목을 통해 우정을 나누며 희망을 키웠다. 태권도엔 어린이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성인부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베이스볼5에선 난민 팀인 아즈락 팀이 요르단 5개 일반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정원 WT 총재는 “내년은 THF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총 10개 종목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는 2016년 THF을 설립한 뒤 난민 캠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고, 2018년 요르단 아즈락 난민 캠프에 태권도 전용 아카데미를 완공해 교육 활동도 이어왔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25/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5600007?section=search>



▲ 난민캠프 태권도 수련생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 4월 문화탐방 실시... 잠실의 숨겨진 풍경과 역사

지난 4월 15일(화), 2025년 두 번째 문화탐방으로 잠실 일대를 탐방하였다. 잠실은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석촌호수 등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강이 흐르고 섬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 문화해설사의 해박한 지식과 흥미로운 정보로 가득한 유쾌한 해설과 함께, 잠실섬, 몽촌호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전도비, 올림픽조각공원, 올림픽프라자 등 송파구의 숨겨진 명소와 이야기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던 문화탐방이었다. 화창한 봄날씨에 산책을 겸한 탐방을 마치고 즐겁게 저녁식사 후 행사를 마쳤다.



▲ 잠실 석촌호수에서 참가자들 함께 촬영

### ■ 5월 문화탐방... 서소문 순례길과 서소문역사공원

지난 5월 13일(화), 5월 문화탐방으로 “서소문 순례길”을 탐방하였다. 본 탐방코스는 2018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국제 순례지 승인을 받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관광지를 접목시킨 코스로,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명동대성당’, 전통 양식과 로마네스크의 조화가 아름다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많은 순교자가 희생당했던 ‘서소문 순교성지’ 및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 드라마에도 등장한 약현동 중림성당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탐방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서울에 들어온 최초의 유럽식 건축물이기도 한 성당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아울러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박해의 역사와 그 의미를 배우고 되새길 수 있었다. 이렇게 뜻깊은 탐방



▲ 서소문역사공원에서 참가자들 기념 촬영

을 마치고 저녁식사하며 친목을 다지고 해산하였다.

## ■ 대형 한류축제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참가

지난 6월 19일(목), 6월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행사에 ICKC 운영진과 회원들이 참가했다. ‘마이케이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IFICE)이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대형 한류 축제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K팝 공연, 국제 콘퍼런스, 한류 산업 전시 및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핸드볼경기장에서는 드라마와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한류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전시, 체험관이 운영되었고, ICKC 회원들은 본 행사장을 둘러보며 K-콘텐츠를 비롯해 K-콘텐츠와 접목된 다양한 상품, 기획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IFICE)의 박창식 원장과 직접 만나 이번 축제의 취지 및 의의,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여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류 팬으로 가득한 축제장을 보면서 한국문화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탐방이었다. 즐거웠던 탐방을 마친 후 기분 좋게 저녁식사하며 친목을 다지고 해산하였다.



◀ ‘마이케이 페스타’를 주관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IFICE) 박창식 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함께 기념 촬영

## ■ ICKC 공식 홈페이지 주소 변경 알림


웹호스팅 만료 및 기존 홈페이지의 낮은 버전으로 인한 불안정성(접속자 수에 따른 홈페이지 다운, 용량 부족, 보안 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ICKC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개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ICKC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졌고, 기존과 동일하게 정기 공시 등 공지사항, ICKC 활동 소식, 정기발행 소식지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변경 전 <http://www.ickc-seoul.net>

\* 변경 후 <https://www.ickc-seoul.kr>

## Ten Thousand Project!

한국문화를 통한 교류,  
국가브랜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 Welcome to ICKC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고양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2011. 9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태권도 및 한국어 전문가, 재미동포 그리고 해외동포 관계자들 370여명이 참가인으로 참여한 ICKC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민족과 국가 간에 친

### ICKC Highlights



**“태권도박예대은 난민 지원 모범 사례”...올림픽난민재단 호평**  
세계태권도연맹(WT)이 태권도를 보급을 통해 전 세계 난민과 취약계층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2016년 설립한 태권도박예재단(THF)의 활동이 올림픽난민재단(ORF) 이사회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호평받았다. 4일 세계태권도연맹에 따르면 현지시간 2일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하우스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겸 ORF 이사장 주재로 ORF의 연례 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IO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된 커스티 코만트리

[Read More](#)



**6월 문화달방...한류축제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참가**  
지난 6월 19일(목), 6월 문화달방의 일환으로 서울 출렁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행사에 ICKC 운영진과 회원들이 참가했다. ‘마이케이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가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대형 한류 축제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K팝 공연, 국제 콘퍼런스, 한류 산업 전시 및 수출 상담 등 다양한

▲ ICKC 홈페이지 첫 화면(<https://www.ickc-seoul.kr>)

## 2025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5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강영실,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호일,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송대성, 양수영,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항구, 이현목, 이호정, 이호진,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준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27일까지      총액 : 14,460,000원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조직 구성**

고문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의근 (주)P&H 회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전영섭 변호사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강영실	교보생명 프라임리더
	박영옥 전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운영위원	박경숙 뉴스피플 회장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이성미 로미코리아 대표	이효진	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황현모 전시기획자, 화가		
감사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겐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 2024년 네팔 GCS 국제대회 참석 및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밝은사회운동 결성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달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